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4, 에스라 7-8장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ta)입니다. 이것은 4회기, 에스라 7-8장입니다.

성경 에스라 7장을 펴십시오.

우리는 책의 이름을 딴 사람인 에스라와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아닥사스다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연대순,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약간의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6장은 키루스의 첫째 해로 시작하여 다리우스의 일곱째 해, 즉 20년 동안 끝납니다. 처음 여섯 장을 다루는 총 기간은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까지 80년 이상이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7장은 지금부터 시작하여 5장과 6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앞선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의 보고와 성전 재건축에 대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더라.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서기관이었으므로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도우사 그가 구하는 것은 다 그에게 허락하였더라.” 책에 에스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히브리어 아자리아(Azaria)의 아람어 형태인데, 이는 야훼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자매 언어입니다.

그들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 7장에서 그가 자신의 혈통을 여기에 대제사장으로 소개된 모세의 형제 아론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실제로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으로 제시되지 않고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의 조상 사리아는 열왕기하 25장에 보고된 바와 같이 약 13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7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족보는 두 세대를 건너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족보를 다룰 때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페르시아 정부의 유대인 문제 담당 비서였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왕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스라의 성공은 그의 정치적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으며, 7절부터 10절은 이 책 전체의 핵심입니다.

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8** 에스라 **7**이 **7**월 제칠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9** 첫째 달 초하루에 그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더라.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니라

왜?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10절은 에스라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니라

이 매우 중요한 구절은 에스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구별한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는 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말하는 대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에스라는 일어나서 주님이시라고 말하는 모든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면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실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왜냐하면 그들은 한 가지를 가르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선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소위 지도자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위선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일을 행했던 구약 시대에 정의되고 재정의되었으며, 그들은 이 말과 저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Derek Kinner가 말한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에스라가 가르친 내용이 처음에는 살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개혁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을 처음에는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연구와 행실과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이러한 올바른 순서로 함으로써 각 기관은 적절하고 최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는 비현실적인 것으로부터, 행동은 불확실한 것으로부터, 가르침은 불성실함과 천박함로부터 보존되었습니다. Derek Kidner의 훌륭하고 훌륭한 인용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위에 여덟 번이나 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11절부터 시작하여 이방 왕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 이는 아닥사스다 왕이 여호와 의 계명 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에 익숙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준 글의 초본이니라 **12** “만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문안하노라. 평화. 그리고 지금은 **13**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의 제사장이나 내 나라에 있는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뜻하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조사하라고 왕과 일곱 모사에게서 보냄을 받았나니 **15** 또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린 은금도 가져가고 **16**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서원한 자원제물과 함께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11절은 히브리어로 시작하지만 12절부터 26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언어이기 때문에 왕은 당시의 공용어, 상업 및 비즈니스 언어로 쓰일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왕실의 언어는 외교적 의사소통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닥사스다는 자신을 왕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은 평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평행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가 여기서 하는 일은 실제로 많은 페르시아 왕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에는 최상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어에는 like가 없습니다. 좋음, 좋음, 최고 또는 나쁨, 더 나쁨, 최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의 가장 좋은 점을 말하고 싶다면 해당 단어를 복수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왕을 말하고 싶으면 왕 중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주님을 말하고 싶다면 만주의 주라고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말하고 싶다면 노래중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내가 최고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겸손은 아닥사스다의 장점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곳에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닥사스다의 편지가 우리가 과거에 본 것처럼 출애굽 사건과 평행을 이룬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과 약탈품을 가지고 나왔듯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두 번째 출애굽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든 제물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

17절 그런즉 너는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전제를 부지런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 그 나머지 은과

금으로 너와 네 형제들의 의견에 선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네게 주어진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라. **20** 그 이전의 왕들과 같이 그 외에 무엇이든지 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네게 맡겨졌으니 너는 그것을 왕의 곳고에서 내다가 쓰라

또, 아닥사스다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요구 사항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즈라가 그에게 그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돌아올 뿐 아니라 왕의 보고에 있는 돈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밖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다고 아닥사스다(Artaxerxes)가 야훼 숭배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종교적으로 관대하고 에즈라가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편 지방의 모든 재무관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네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행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은 백 달란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밀, 포도주, 기름 등을 언급합니다. 23,

23절 하늘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다 이루어야 그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할까 하노라 **24**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임 사람들과 하나님의 전의 다른 종들에게 조세와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너희에게 알린다.

아닥사스다의 이 자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확실히 매우 관대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에 바쳐진 모든 조공 때문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가 실제로 성직자들을 면세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25, **25절** “에스라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할 총리와 재판관을 삼으라.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26**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이나 추방이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는 형벌로 그에게 엄히 심판하라.”

이제 왕은 편지에서 에스라에게 직접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이방 왕도 누군가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있음을 봅니다.

반응은 무엇입니까? 27, 28절을 보면 복이 있습니다.

27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예루살렘 여호와 의 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뜻을 왕의 마음에 두셨으니 **28** 그가 왕과 그의 모사들 앞과 왕의 모든 권세 있는 신하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의 손이 나를 도우셨 으므로 내가 담대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지도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려 하였느니라

왕이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27번 정도 나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느니라.

다시, 우리는 에스라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에스라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능숙해야 합니다.

이 스킬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성경 교사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에스라의 모범을 따르는 부지런하고 영으로 충만한 교사보다 더 격려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말하기 전에 연구하고,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가 모든 일을 혼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겸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의 표시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법을 배우는 경건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에스라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돌아온 가장들의 또 다른 목록이 있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집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 목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목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들의 아버지 집의 가장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는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이다. 다시 말하지만 루블 지폐는 약 50,000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 2,000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가 1인칭으로 기록한 몇 가지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에스라 회고록이라고 부릅니다. 에스라가 1인칭으로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은 에스라 회고록의 일부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인칭으로 글을 쓸 때, 느헤미야 회고록의 일부가 되십시오. 이제 책은 다시 하나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가 썼는가? 글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둘 다 그 책들에 나오는 내용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에스라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느헤미야였다고 주장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의 시작과 역대하의 끝, 그리고 예레미야서와 약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서, 아마도 에버렛이 이 부분 중 일부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역대하의 끝과 에스라의 시작,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대하의 끝과 에스라서의 시작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일인칭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에스라 자신이 그것을 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5-20절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 나는 그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아 거기에서 사흘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 본즉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더라 **16** 이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들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과 명철한 사람들 요야립과 엘라단을 부르게 하여 **17** 그들을 벤엘의 지도자 잇도에게로 보내었느니라 가시바를 세우고 잇도와 그의 형제들과 가시바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 봉사자들을 보내라 *하라*.

또 포로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손자 말리 자손 중에서 슬기로운 사람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우리에게로 데려오니 18명이요.

또 하사바와 그와 함께한 므라리 자손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 아들들이 20명이요. 그 외에 레위 사람이 38명이요, 그 외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요.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따로 정했는데, 이들 모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아하와에 있는 귀환자들을 검사할 때. 이번에도 아하와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나온 운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레위인들이 없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조사하던 중 마침내 성전 공사를 도우던 레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섬기는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매우 많이 존재함을 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무엇을 합니까? 에스라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위대한 인물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금식 중에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안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느니라. **22** 우리가 왕께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였음이라 길에서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와 마병의 무리를 왕께 구하기를 부끄럽게 여겨 그의 진노는 자기를 버린 모든 자에게 임하느니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간구를 들으셨느니라.

구약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의 위대한 남녀들은 모두 기도와 금식의 남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에즈라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금식이 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금식은 기독교인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패스트푸드점이 있으면 단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 아침 기도회를 할 때 금식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금식을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다지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파티를 부르면 이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도 성경과 교회사의 모든 인물과 위대한 인물은 기도와 금식의 인물이었습니다. 단식은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면서 나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의 위대한 힘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내의 할아버지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의 할머니를 매우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2년 전에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180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와 금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가 신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와 금식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금식에 관해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미친 듯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식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금식과 기도는 늘 함께 갑니다.

의학적인 목적을 위한 금식은 성경에서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이것을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 기도와 금식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잠시 쉬고 그 시간을 어떤 것에 관해 기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큰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즈라가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를 결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항상 기도와 금식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있어서 금식은 그리스도인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최고의 격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을 깎아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니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스라와 그의 동포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과 금을 지키는 자들을 봅니다. 다시, 에스라는 그의 지도력 방식으로 대제사장 12명을 구별했는데 그들은 은과 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5 나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거기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그들에게 달아 주었느니라. **26**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은은 650달란트, 은 그릇은 200달란트, **27** 은 100달란트를 주었고 **27** 1,000다릭 상당의 금 대접 20개와, 금만큼 값지고 빛나고 빛난 청동 그릇 두 개. **28**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고 그릇도 거룩하니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니라 **29** 예루살렘 여호와 의 전 골방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달아 보기까지 그것을 지키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들의 무게를 맡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려 하였더니.

또 여기의 금은은 많은 금과 은이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큰 보물을 지키는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숫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텍스트의 진실성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금 3.5톤, 은 24.5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관대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와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주님께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주님께 거룩하다는 표현은 오경에서 유래되었으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신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나중에는 분명히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이 표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단 한 번만 나타난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 거룩한 날, 여호와께 거룩한 날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거룩합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아서는 안 되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경에서처럼 백성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과 그릇도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됩니다. 그리고 8장 끝부분에서는 그들이 시작한 여행이 8장에서 끝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행은 7장에서 시작됩니다. 8장 끝 부분에서 에스라와 백성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정월 12일에 아하와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세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무게를 잰습니다.

35절

. 35절 그 때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숫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 양 칠십일곱 마리라 속죄제로 숫염소 열두 마리를 드렸느니라.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었습니다. **36** 그들은 또한 왕의 명령을 왕의 방백들과 유수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맡기고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이 유프라테스 강 운하에서 12일을 보낸 후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공급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희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된 황소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리더십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 특히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 성실함. 에스라의 경우에도 위임할 때 이러한 겸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금식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나 무결성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성실성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제물 관리를 위임하고, 제물과 그것을 다루는 자 모두가 여호와께 거룩해야 함을 깨닫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역사를 통해,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여해서는 안 될 금전 문제에 연루됩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주님께 거룩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성실성의 예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에는 목사가 헌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지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는 비전을 다루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에스라가 겸손과 진실성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ta)입니다. 이것은 4회기, 에스라 7-8장입니다.